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2〉 곡성 '도깨비 마을 사람들'

도깨비 마을에 오늘은 무슨 일이?

'척박한 지역문화 살찌우기' 앞장

인형극·글쓰기 모임 등 다양한 활동

노래·악기강습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인형극을 하려면 어깨 힘과 다리 힘이 좋아야 해요.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며 힘을 키우세요."

"인형 얼굴이 잘 보이도록 팔을 많이 흔들어야 합니다."

지난 22일 곡성군 곡성읍에 자리잡은 '(사)도깨비 마을 사람들'(이하 도깨비 마을) 사무실은 엄마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도깨비 마을 인형극 모임 정기 연습이 있는 날. 오는 10월 무대에 올릴 '도깨비가 호랑이 빤스를 입은 날' 연습을 하느라 엄마들은 정신이 없다. 신참 단원들을 엉거주춤 주저 앉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연습중이고, 한쪽에서는 공연에 사용될 인형을 만들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유모차에 자리잡은 아이는 곤한 단잠에 빠져 있고 젖먹이 간난아이는 틈틈이 손이 비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돌본다. 인형극 모임이 열리는 날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20~40대 엄마들은 함께 모여 수다도 떨고, 인형극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줄 때면 뿌듯함이 절로 든다.

곡성은 인구가 3만명에 불과한 작은 고장이다. 전남 지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적다. 사실, 대도시에 비해 군 지역은 제대로 된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곡성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몇년 전부터 곡성에는 잔잔한 문화 향기가 퍼져나가는 중이다. 그 중심에 '도깨비 마을'이 있다.

도깨비 마을은 척박한 지역 문화를 살찌우기 위해 동화작가이자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곡성 출신 김성범(46)씨 등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문화 공동체다. 지난 2001년 첫발을 뗀 '도깨비 마을'은 민들레 홀씨가 퍼져 나가듯 천천히 뿌리를 내리며 곡성 지역 문화를 튼실히 하고 있다.

인형극 모임 뿐 아니라, 문학 글쓰기 모임,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기타 등 악기 강습 모임 등이 운영 중이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노래 모임, 악기 배우는 모임, 어린이 글쓰기 모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둠은 바로 인형극팀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영암도서관에서 공연 의뢰를 받았고 11월에는 광주 북구청이 주최하는 인형극 축제에도 참가한다. 또 나주 지역 장애인 시설인 계산원 공연도 예정돼 있으며 곡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준비중이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문화 모임이 운영된다는 게 참 대견스럽죠. 무엇보다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체험 기회가 적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인형극 모임도 도깨비 마을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를 둔 몇몇 엄마들이 의기투합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인형극 모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37)씨는 "첫 공연 때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한번 공연하고 나니 그 맛을 알겠더라"며 웃었다.

단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곡성에 살기 시작한 한 회원은 인형극 연습이 있는 날이면 20분씩 버스 타고, 젖먹이 둘째를 데리고 모임에 꼭 참석한다. 도시도 아니고, 군 지역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참 많이 놀랐고, 지금은 이 모임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동문학반에는 얼마전 경사가 있었다. 처음으로 등단 작가가 나온 것. 3년전부터 문학반에서 활동했던 곽해익(46)씨가 '아동문학평론' 동시 부문에 당선돼 어엿한 작가가 됐다. 다른 회원들도 곽 씨의 당선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중이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은 다음달 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다. 곡성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문화 나눔을 실천키로 한 것. 도시 학교들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곡성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기획이다.

'도깨비 마을' 어린이 회원들 역시 다양한 문화 모임에서 활동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동요집을 냈다. 아이들이 쓴 일기는 근사한 가사가 됐다. '소연아 오줌쌌니?' 등 모두 14곡이 실린 음반은 전국에 무료로 배포됐다.

도깨비 마을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자신들의 뿌리인 '곡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점이다. 도깨비 마을은 올 초 전남도가 주최한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곡성 이야기로 1등을 수상했다. 인형극 모임이 무대에 올리는 '도깨비살', '도깨비가 호랑이 빤스를 입은 날' 역시 곡성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고 지난해에는 곡성의 설화를 모은 동화 구연 CD '설화 따라가는 곡성 여행'을 냈다.

아이들의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다. '기차마을' 등 곡성의 대표적인 볼거리와 곡성에서 나는 농산물인 딸기와 옥수수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가져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따라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자랑스러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가 갖는 힘입니다."

김 촌장은 "처음 도깨비 마을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모둠이 생길지 몰랐다"며 "서로 어울리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www.dokaebi.co.kr. 문의 061-363-2953.

/곡성=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곡성읍에 위치한 '도깨비 마을 사람들' 사무실에서 인형극 모임 회원들이 연습에 한창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 만들었어요

어린이 회원 창작동요 음반 3장

올해 곡성 사랑 담은 CD 계획

'도깨비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어린이 회원들은 지금까지 창작 동요 음반 3장을 발표했다.

동요음반에는 어린이들의 일기와 동시, 아이들이 직접 나누는 대화를 토대로 재미있는 가사를 만들고 흥겨운 편곡을 입힌 곡들을 실었다.

또 곡성에 전해오는 신선바위 설화를 소재로 한 '뿌지직' 등도 함께 넣었다.

올해는 4집과 5집을 낼 계획이다. 4집은 곡성을 알리는 노래들을 묶어 발표한다.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가사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흥겹게 부르면서 자연스레 곡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

'도깨비 마을 사람들'이 만든 책과 음반.

5집은 순수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창작 동요 CD는 어린이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도깨비 마을 촌장 김성범씨는 곡성에 전해오는 설화를 내용으로 한 동화 '도깨비 살'을 발표했다.

또 섬진강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 도깨비를 소재로 한 조각 작업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